

견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해 돌는
대서복려 지는 데까지 세상을 복하셨도다
시편 50: 1



2022년 주요사역 The Core Ministries

제주 서귀포 그릿시넷가 중국인 교회

제2분기 사역소식 Ministries Updates

로잔대회의 선교중국과 선교트렌드

중국교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중국선교는 어느새 중국교회를 세계선교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선교중국” 운동으로, 그리고 화교들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중어권 선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교들이 중국대륙의 크리스찬과 선교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는 차치하고, 흩어진 중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선교가 미래의 세계 선교 자원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가가 선교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이 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잔대회 지도자들은 홍콩인들과 중국대륙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가면 갈수록 영국과 같은 유럽 지역에 더 모여들고 있는 점을 세계선교전략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양안관계의 정치적 불안으로 말미암은 대만 교회의 위기와 함께 또 다른 양상으로 “제7대륙 선교”라 불리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유럽의 중국인 유학생들일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반감이 높아진 중국의 유학생들은 점점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선교 인프라는 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럽교회들의 빠른 쇠퇴로 인한 것이겠지만, 19세기의 위대한 세기를 그리워 하는 유럽교회들의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가 중국의 중화사상과 충돌할 때 문화적 갈등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의 중국인 커뮤니티 축소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제주 중국인 커뮤니티는 무사증 입국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제주의 여건상 계속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야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중국인들 사이의 코로나 유행이 아직 커뮤니티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 형제자매들은 올해 안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예배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중국인 친구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도 의연해진 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증상을 감추던 분위기가 엔데믹 무드를 타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뒤늦은 중국인 커뮤니티의 코로나 유행에 덜 민감한지도 모릅니다.

열심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시 전도에 힘을 써서 또 다른 팬데믹에도 더 많은 고정적 예배참여자 준비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야”라는 말을 흔하게 합니다. 아마도 중국 내부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겠지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던 우리 형제자매들의 전도 어법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 양안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평화를 위한 기도회 필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인들은 전쟁가능성을 더 크게 느끼는 중입니다.



샤오환 세례받다

제주에 와서 5년 동안 건축현장에서 철근설비 기술자로 일했던 샤오환 형제가 지난 주일 (5월 1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래는 부활 주일 전에 세례교육을 끝내고 준비하였지만 교회안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심각한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바람에 세례의식도 늦어졌습니다. 샤오환은 커다란 신체조건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너무도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중국의 친족 중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자신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 교회를 다닌 경험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온 이후로 마음의 불안이 커지고 뜻하지 않게 작업장에서 넘어져서 뽀족한 철근에 찢리는 바람에 파상풍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연락을 받은 저는 간호사인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 약을 받아 전해주고 이튿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도와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형제를 안심시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중국의 믿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는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를 만나게 해 주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뒤로 3년간 점점 예배 출석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일년은 거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도 분명해져서 결국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아마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한 부부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부싸움 중에 욕하는 성격의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하였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남편이 술김에 저지른 일이지만, 아내인 짜오 자매는 휘두르는 칼의 날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엄지와 검지 사이가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시간이 지나서야 천으로 대충 출혈을 막고 친구인 우리 교회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너털너털해진 살을 봉합하느라 한 층 꿰매고 곁에 또 한 층을 꿰맸습니다.

그 부부는 중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우리 교회 차오 자매가 전부터 전도를 하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저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돈을 쥐어주길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하고 사양했더니 감동을 받고 그날 아침 주일이어서 저녁에 예배모임에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이지만 남편되는 천형제도 짜오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온해진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천, 짜오 부부가 예수님만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